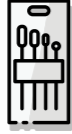


바늘에는



실이 꼭!



영화볼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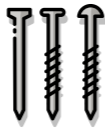
팝콘이지~



망치에겐



못이 짝꿍!



우리에게는? 언제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 KOREA

능력중심사회의 디딤돌 한국산업인력공단

vol. 277 | 07
JULY 2019

나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CONTENTS

2019 7 Vol. 277

04 CEO 칼럼

Z세대 국가대표의 성공 방정식

발행일 2019년 7월 1일

발행인 김동만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교동)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 송일미디어그룹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26번길 3

전화 070.4219.7482

www.smgcorp.kr

월간 「HRD KOREA」는 평생능력개발, 국가 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 장려 및 기능경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HRD) 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매월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외부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 꿈이 힘이다



06 스페셜 테마

해외취업 지원 사업

10 동반성장의 현장

한국무역협회



미래를 키우다



26 트렌드 리포트

제로페이

28 직방탐구

대외활동 준비하기

30 NCS 완벽 대비

'현실 같은 생생한 경험' 실감형 콘텐츠 제작

32 HRD 탐방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36 공감수기

2018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이윤상



사람이 힘이다



14 집중 HRD 1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 발대식 개최

16 집중 HRD 2

2018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

18 땀으로 일군 값진 인생

우수숙련기술자 신정옥 (신정 Design Glass 대표)

22 화제의 인터뷰

SBS 라디오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HRD와 함께



38 이달의 심포

경기도 가평

42 청렴韓세상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44 HRD 뉴스

'201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성과 평가 최우수공동훈련센터 시상식' 개최 의

우체통

46 <HRD KOREA> 2019 상반기 설문조사

HRD

THEME

x

나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트롤'에서는 주인공 브랜치가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나쁜 캐릭터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온다. 농악놀이 중 상고머리 돌리기 동작을 응용한 장면이다. 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 후 현지 취업에 성공한 전용덕 촬영 감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는 위기를 겪은 후 드림웍스 입사에 성공, '슈렉'과 '쿵푸팬더', '크루즈 패밀리' 촬영을 총괄했다. 그리고 작품에 한국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트롤'에서 실현했다.

꿈에 경계는 없다. 더 넓은 세상에 취업해 더 큰 나라를 펼치는 한국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 정보 제공에서부터 어학·직무 교육과 취업 지원,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며 한국 청년들이 세계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대 국가대표의 성공 방정식

2019 U-20 월드컵 대회로 온 국민이 즐거웠다. 마지막에 이쉽게 지기는 했지만 36년 전 멕시코 청소년 월드컵 4강 진출 이후 최고 성적이다. 하지만 결승전까지 여정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축구의 '성적 이상의 성장'을 느꼈다. 승부차기까지 간 8강전이 끝나고 상대 세네갈 팀을 칭찬하는 모습이나, 4강전을 이기고 흥에 겨워 아버지뻘인 감독에게 물세례를 부는 광경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도 마지막까지 게임을 즐기고, 참여한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새로웠기 때문이다. 이른바 'Z세대'라는 신인류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를 잇는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이들을 말한다. X세대, Y세대 다음이라 Z세대라고 부른다. 세대 연구 전문가 진 트웬지 샌더에이고주립대 심리학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메일과 실시간 채팅을 사용할 정도로 정보통신 활용능력이 뛰어나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무선전화를 가진 인류 최초 세대다. 또한 현실과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도 강하다. 청소년기에 겪은 세계 불황과 금융위기로 만들어진 세대 특성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세대 내 '관계망' 중심 가치관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관계망' 중심 가치관이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본인이 신뢰하는 '관계망' 내에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권위주의' 문화는 반발하면서도 실력에 따른 '권위'는 인정하는 '능력중심주의'를 보인다. 이번에 정정용 감독도 선수들에게 '수직적 지시' 보다는 '수평적 이해'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한다.

올해 8월 또 다른 'Z세대 국가대표'가 세계 도전에 나선다.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1967년 스페인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30번째 대회다. 만 22세 이하 선수 중심으로 구성된 대표선수 52명이 47개 직종에 출전한다. 어린 연령대 선수들은 감정변화로 시합결과에 영향을 받는 일이 많다. 코칭스태프 역할로 참가하는 국제지도위원 47명은 기능올림픽 결과가 발표 날 때까지 모든 일정을 제자인 국가대표선수 52명과 함께하며 일대일 눈높이 지도를 한다. 평소 지속적인 선수관찰과 세심한 훈련지도로 자기주도 능력을 키워주어야 실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 예측불허 문제가 발생해도 선수 스스로가 상황을 제어할 수가 있다.

국가대표 A매치에 해당하는 해외전지훈련 또한 국제지도위원 지도하에 진행 중이다.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마지막 담금질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최종 단계로 국제대회 경기운영 및 과제 공개시기에 맞추어 국제대회 방식 모의평가 등 실전 강화훈련이 실시 예정이다. 대표선수 및 국제지도위원과 3인 1팀을 꾸릴 통역요원 47명도 국제대회 경기운영 방식과 유의사항 등의 통번역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U-20 정정용 감독은 언론에 자신의 팀을 '꾸역꾸역팀'이라고 표현했다. 꾸준하게 발전하고 끈질기게 버틴다는 의미다. 그 말 그대로 결승까지 일곱 경기 중 한 경기도 쉬웠던 적이 없었지만, 선수와 지도자 모두 매 경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국제기능올림픽도 그렇다. 지난 대회 최강자 중국을 비롯해, 개최국 이점을 활용한 러시아의 거센 압박과 중남미 신흥강호 브라질, 유럽전통 기술강국 스위스 등 우리 선수들에겐 누구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이 하나로 뽕뽕 뭉친다면, 작년 6월 러시아 월드컵에서 축구강호 독일을 이긴 그곳 카잔에서, 울여름 다시 한 번 세계에 대한민국 신세대의 저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HRD

2019년 7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 동 만



해외취업 탐색부터 사후 관리까지 청년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태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구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해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의 글로벌 경력개발 지원과 청년실업을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 제공과 상담을 시작으로 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취업 상담·알선, 취업자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해외취업 희망 청년의 역량과 눈높이를 고려한 수준별·취업단계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진출 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와 해외취업아카데미, 설명회, K-Move스쿨, 청해진 대학, 해외취업 완전정복 가이드북 발간, 전국 4곳 해외취업센터 운영 등 해외취업에 유용한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적합 구직자를 육성·확보 하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력에 힘입어 2015년 2,903명이었던 해외취업자는 해마다 늘었고, 2018년에는 5,783명을 기록했다. 해외 취업자수뿐 아니라 평균 연봉 상승과 관리자·전문직종 취업자 확대가 이뤄지는 등 양질의 일자리도 증가했다.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청년을 든든히 응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구직자가 원하는 우수한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재 발굴·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HRD



정보 제공부터 현지 적응까지 청년 해외취업 지원 프로세스

01 해외취업 상담·정보 제공

- 해외취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요. ▶ 해외취업 설명회 지원 프로그램, 참여방법, 채용·비자 정보, 고용·노동시장 동향 등
-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싶어요. ▶ 해외취업아카데미 외국어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모의 면접 등
- 직접 부딪혀서 알아보고 싶어요. ▶ 국가별 정보박람회 구인기업, 리크루팅사, 취업 선배, 교육기관, 지원기관 상담, 체험서비스 제공
- 국가별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어요. ▶ 1:1 심층 상담 내방 상담, 온라인 채팅, 이메일 상담 등
- 관심국가 정보를 한 번에 보고 싶어요. ▶ 국가별 가이드북 12개국 완전정복 가이드북 제작·보급
- 해외취업 정보를 얻고 싶어요.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구인 공고·교육과정·국가 정보, 온라인 상담 플랫폼

01
STEP

02
STEP

구직자 역량 강화

- 직무능력·외국어가 아직 부족해요. ▶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대졸(예정)자를 주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어학교육 후 해외취업 연계
- 저학년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고 싶어요. ▶ 청해진 대학 저학년 대상 예비자 과정 + K-Move스쿨, 중장기 통합지원 프로그램

03 일자리 알선

- 믿음만한 공공 알선을 이용하고 싶어요. ▶ 공공 해외취업 알선 국내외 K-Move센터를 통해 발굴·모집한 해외 구인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매칭·취업
- 민간 전문기관 알선을 이용하고 싶어요. ▶ 민간 해외취업 알선 국내외 민간알선 기관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매칭

03
STEP

04
STEP

현지 적응 지원

- 취업 초기 돈이 많이 들어요. ▶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단계적 지원금 지급(최대 800만 원)
- 현지 적응 정보가 필요해요. ▶ 해외현지 애로상담(KOTRA 협업) 취업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지 정보 공유와 현지 모임, 행사 등을 통한 친교활동 지원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하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

해외에서 당당히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해 보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98년부터 해외취업을 모색하는 청년을 위해 수준별·취업단계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취업의 첫걸음, 월드잡플러스

해외진출 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에서는 해외취업, 인턴, 봉사, 창업 정보 등 해외진출에 대한 통합 정보를 볼 수 있다.



해외취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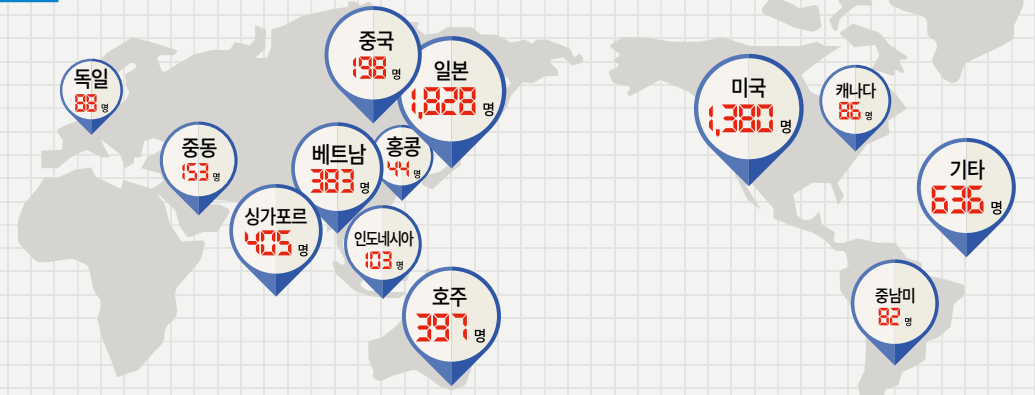
서울 해외취업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02호
02-6964-7072~5

부산 해외취업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 골드로즈빌딩 610호
051-715-701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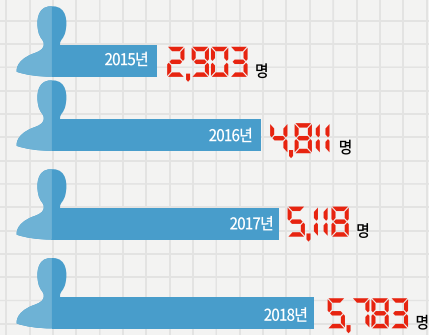
통영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통영시청 지하 1층 힐링센터
055-650-3962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 제2학생회관 2층 / 063-469-8952

주요국가별 해외취업자수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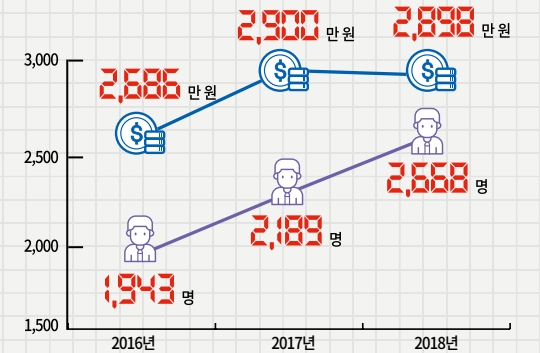


해외취업자수



양질의 해외 일자리 증가

평균 연봉이 2016년 2,686만 원에서 2018년에는 2,898만 원으로, 관리자·전문직종 취업자는 2016년 1,943명에서 2018년 2,668명을 기록하며 해외취업 지원 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Good!

만족도 높은 해외취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 체류 중인 취업자의 91.9%는 해외취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보통 이상 만족 답변). 또한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의 55.1%가 근무 환경을 꼽았다. 또한 외국어 능력향상이 2위, 글로벌 업무 경험이 3위로 나타났다. HRD



동반성장의 현장



글로벌 인재 양성, 한국 청년에게 든든한 힘이 되다

최우수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기관

한국무역협회



한국 청년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해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IT기업에 취직한 다섯 명 중 한 명은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K-Move스쿨 SC(SMART Cloud) IT 마스터 과정 출신이다. 수료생 70%가 비전공자임에도 1,764명이 해외취업에 성공, 누적 취업률 98%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최우수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를 찾았다.

국내 최대 IT 인재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SC IT 마스터 과정 운영

1946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을 하는 무역업체들이 주 회원으로 이루어진 무역특화 민간 경제단체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한국무역협회는 청년 해외 진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육기관인 무역아카데미를 통해 1965년부터 지금까지 약 32만 명의 현장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온 경험을 살려 글로벌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년 민간기관 1호 K-Move센터로 지정된 한국무역협회는 K-Move센터와 K-Move스쿨을 운영 중이다.

K-Move센터를 통해 박람회와 면접회를 개최하며 한국 청년에게 해외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KITA 일본기업 채용박람회'는 일본 리크루트사와 매년 6월, 9월 개최하는 행사다. 박람회별로 45개사 정도의 일본 중견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며 1,500여 명 이상의 입사 지원자 중 서류심사에 통과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접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매월 '개별기업 채용 면접회'를 연다. '실전 일본 취업 과정'도 운영하는데, 일본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대학 3·4학년도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무역인턴십'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한 대표적인 대학생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해외취업 지원기관 중 일본 취업자 수 1위를 달리며 독보적인 해외취업 실적을 자랑한다. K-Move스쿨 3개 과정 중 'SC(SMART Cloud) IT 마스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SC IT 마스터 과정은 19년간 2,39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누적 취업률 98%를 기록한 과정이다. 해외취업 사례가 드물었던 2001년, 한국무역협회가 이 과정을 개설하면서 해

외취업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2012년 제24기 수료생이 14명으로 급감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2015년 제28기까지 5기 연속 100% 취업률을 달성했다. 한국무역협회 취업연수실 이동원 실장은 "SC IT 마스터 과정이 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과정으로 선정됐고, 2017년부터 연 교육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국내 최대 IT 인재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으로 당당히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SC IT 마스터 과정 수료생 70%가 비전공자이지만, 10개월 동안 일본어와 웹·AI 프로그래밍 기술을 집중 교육받기 때문에 라쿠텐, 소프트뱅크, 일본 IBM 솔루션 서비스 등 일본 IT 관련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다. 일본은 실력이 우수한 경우, 국적을 가리지 않는 기업 문화가 있다. 미래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고 학력이나 연령은 덜 고려하기 때문에 일본 IT 취업 전망은 밝다.



한국무역협회 취업연수실 이동원 실장



SC IT 마스터 과정 수업 장면

다소 나이가 많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 탄탄한 개발 실력을 갖춘 수료생들은 일본 대기업 정규직 입사는 물론,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가 커리어를 쌓아 원하는 기업으로 이직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신입사원으로 취직하기 어려운 만 34세에 이 과정을 수강하고 일본 기업에 취업한 케이스도 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직하기도 하고, 직장생활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직접 창업에 나선 경우도 있다. 정재완 교수는 “일본은 물론 글로벌 IT 인재로 성장해 세계 곳곳에서 자리를 잡아 능력을 펼치는 수료생들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K-Move스쿨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베트남 글로벌 마스터 과정’과 일본 현지에서 교육을 받는 ‘KITA 일본취업학교’도 운영 중이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성과 나올 수밖에 없는 한국무역협회 역량

이렇듯 한국무역협회가 청년 해외취업 지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는 K-Move스쿨과 K-Move센터를 통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2018년)

합 운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일본 IT 관련 기업 200여 개사와 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연수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 기업과 인재를 매칭 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사전 온라인 매칭 시스템은 한국무역협회의 강점이다. 취업박람회 개최 전 온라인 매칭 시스템에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자기PR 동영상 업로드 하고, 채용 공고 확인 후 입사 지원을 한다. 구인 기업은 이를 통해 지원자의 면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취업박람회 개최 전 예비 합격자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동원 실장은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하는 취업박람회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구인 기업이 합격자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수마다 보다 탄탄해지는 교육 커리큘럼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한국무역협회는 SC IT 마스터 과정 수료생들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설문조사를 한다. 실무에 투입되는데 무엇을 더 교육하면 좋을지,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체크한다. 이를 통해 특화된 커리큘럼과 세부 콘텐츠를 개발, 다음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 한국무역협회의 해외 네트워크도 청년 해외취업에 커다란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무역

협회 해외 지부는 모두 11개. 이들을 통해 한국투자기업은 물론, 현지기업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리쿠르트사와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는 예가 바로 베트남 글로벌 마스터 과정이다. 지난해 처음 개설, 올 7월말 수료 예정인 이 과정은 호치민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지부와 협업을 통해 연수생 29명 중 70% 이상이 수료 2개월 전에 취업이 내정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역협회가 보유한 수준 높은 인프라도 강점이다. ICT교육센터는 14개 어학강의실, 12개 IT교육장, 세미나실, 취업상담실, 화상면접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동원 실장은 해외취업을 고려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은 결코 국내 심각한 취업난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낯설고 외로운 해외 생활을 견딜 수 있는지 치열히 고민해야 현지 적응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고, 취업 과정에서 왜 이 국가에, 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해외취업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응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늘어나는 일본 취업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연 1회 개최하던 ‘KITA 일본취업박람회’를 올해 4회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총 6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핀란드 등 일본 이외 취업국 다변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이를 통해 2018년 320명이던 일본 취업자수가 2020년 600~700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베트남,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를 포함, 한국무역협회의 해외취업 실적이 총 800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RD

제38기 SC IT 마스터 과정 수강생 모집
 과정설명회 : 7월 20일 11시, 8월 10일 11시
 (코엑스 402호)
 면접일 : 9월 17~19일
 개강일 : 9월 30일
 연수 내용 : 10개월간 프로그래밍, 일본어 집중 교육
 선발대상 : 만 34세 이하 해외취업 희망자
 (전공제한 없음)
 문의 : 02-6000-5938, 5413, www.itmasters.org

베트남 글로벌 마스터 과정
 베트남 진출 한국투자기업의 중간관리자 양성 과정. 2개월간 한국에서 무역실무, 기초 베트남어 등을 배우고, 8개월 동안은 호치민시 투득기술대학 기숙사에 입소, 베트남어, 영어, 생산·구매관리, 노무관리 등을 교육받는다.
 문의 : 02-6000-5968

KITA 일본취업학교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6개월간 하루 6시간 일본어(70%), 직무교육(30%)으로 구성. 일본어 중상급자에 한해 상시 지원 가능.
 문의 : 070-7841-6807

실전 일본 취업 과정
 일본어 실력을 갖춘 취업준비생 대상 일본식 자기PR 방법,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일본 기업문화 등 교육
 문의 : 02-6000-7136, www.jobtogether.net

글로벌무역인턴십
 연 2회 모집, 각 60명 내외 선발. 미국, 독일, 베트남 등 세계 13개국에 있는 한국기업 해외지사에서 6개월 간 실습
 문의 : 02-6000-5377

해외취업 희망 청년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홍보활동 전개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 발대식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자리 잡은 서울 해외취업센터에서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 16명은 8월 9일로 예정된 해단식까지 2개월 동안 해외취업 지원 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해외진출 통합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6월 7일 서울 해외취업센터에서 열린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 발대식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 발대식이 지난 6월 7일 서울 해외취업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로 선발된 인원은 16명. 해외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얼굴에는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묻어났다. 박동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고객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를 선발 했다”며 “청년 눈높이에서 해외취업 지원 사업과 월드잡플러스를 홍보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후 임종진 해외취업기획부장이 서포터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취업자 수와 국가 현황 등 해외취업 현황과 해외취업 진행과정,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을 소개 했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 SNS 홍보콘텐츠를 만들어낼 서포터즈를 위해 안희진 기자의 콘텐츠 기획 강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서포터즈 4기 최종 우수팀의 후기를 공유했다. 4개 팀으로 나뉘어 팀별 미션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의 활동 각오를 다지며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는 오는 8월 초까지 2개월 동안 팀별, 개인별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며 해외취업 지원 사업 홍보활동과 함께 해외취업 관련 행사에 참여, 현장 취재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또한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모니터해 개선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수 활동자에게 이사장상을 수여하고, 해외탐방 기회를 제공하며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의 활약을 적극 지원한다. H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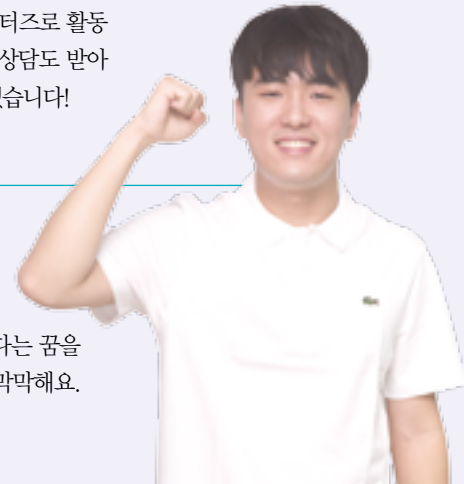
Mini Interview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 5기에게 듣는 활동 각오



| 이가영 씨 |

대학교에서 관광컨벤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어요.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상담도 받아볼 계획입니다. 우리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 송명현 씨 |

경영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기로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처음 해외취업을 생각해볼 때는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요. 청년들에게 속 시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12대 신산업 분야 등 50개 신규 개발

2018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조명 개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스마트 설비 설계

레저선박 몰드 제작

철도 정보통신 설비공사

무인기(드론) 콘텐츠 제작

리조트 운영관리

골프 캐디

제조업

콘텐츠 제작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철도 정보통신 설비공사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조명 개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스마트 설비 설계

레저선박 몰드 제작

철도 정보통신 설비공사

무인기(드론) 콘텐츠 제작

리조트 운영관리

골프 캐디

제조업

콘텐츠 제작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철도 정보통신 설비공사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일, 4차 산업혁명, 해양관광 분야 등 2018년 새로 개발한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건설, 기계, 섬유, 환경, 전기·전자 분야 등에서 개선한 10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정·고시했다. 특히 새롭게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특성화고 교육과 직업 훈련, 관련 자격 신설, 일자리 창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일, 2018년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이하 NCS)을 확정·고시했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직업훈련, 직업교육, 국가기술자격, 기업 채용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고시한 2018년 NCS에는 50개 신규 개발 NCS와 106개 개선 NCS가 담겼다.

신규 NCS 기반 교육·훈련, 자격 신설, 일자리 창출 전망

신규 개발 50개 NCS를 살펴보면, 미래 유망 분야에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17년 12월 발표한 미래 유망 신산업 인력 수요 조사 전망을 근거로 무인기(드론) 콘텐츠 제작, 스마트 설비 설계 등 20개 NCS를 개발했다. 건설 분야에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줄걸이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NCS와 함께 직업교육과 훈련에서 활용 수요가 높은 한옥시공과 같은 NCS를 새로 개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해양 관광 레저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레저선박 몰드 제작, 복합재료선박건조 등 5개 NCS가 레저선박 분야에서 추가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리조트 운영관리, 골프 캐디 등이, 광산업 분야에서는 광 응용 제품의 핵심 요소기술인 광학 소프트

웨어 응용, 광센서 기기 개발 등이, 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철도, 항만, 공항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철도 정보통신 설비공사, 도로·교통정보통신 설비 공사 등을 개발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행동 교정 NCS 개발도 이뤄졌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스마트 설비·설계, 한옥 시공, 레저선박 몰드 제작, 리조트 운영관리 등 NCS 개발로 NSC 기반 특성화고 교육과 직업 훈련, 관련 자격 신설, 일자리 창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선 NCS, 안전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등 반영

106개 개선 NCS는 도로설계, 공항설계, 교량설계 등 건설 분야가 19개로 가장 많다. 기계 분야에선 활용 과정에 발생한 어려운 점을 없애기 위해 기계요소설계, 구조해석설계 등을 개선했다. 섬유 분야에선 제직 의류 생산, 패션 소품 생산 등을, 환경·안전 분야에선 산업현장 안전 강화에 따라 수질 오염 분석, 수질 공정 관리 등을 개선했다.

또한 전기·전자 분야에선 지능형 전력망 설비, 전기 설비·설계 등을, 재료 분야에선 재료 시험과 이산화탄소 용접 등 9개 NCS를 개선했다. 게임 콘텐츠 제작, 떡 제조 등도 개선작업을 마쳤다. HRD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도전

우수숙련기술자
신정옥 (신정 Design Glass 대표)

지난해 8월 화훼장식 직종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신정옥 신정 Design Glass 대표는 플로리스트다. 신정옥 대표는 양파와 옥수수 껍질에 물을 들여 압화(누름꽃) 작품을 만드는 특허를 등록하고, 접합유리에 압화를 부착해 아름다운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다. 신정옥 대표는 시대 변화에 따라 플로리스트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고 있는 신정옥 대표를 만났다.

시드는 꽃 아까워 압화 시작

신정옥 대표는 1년 내내 꽃과 함께 한다. 가장 좋아하는 꽃은 작약이다. 아네모네와 덜꿩나무 꽃, 새순일 때 채취하는 금빛의 참식나무 잎 역시 신정옥 대표가 좋아하는 소재다. 신정옥 대표는 꽃이 필 때를 기다려 이를 채취하고 눌러 말린다. 신정옥 대표의 작업실에는 다채로운 색깔의 꽃들이 언제나 가득하다.



신정옥 대표는 플로리스트다. 플로리스트하면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만들고 꽃장식을 하는 직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플로리스트의 세계는 방대하다. 신정옥 대표는 압화를 인테리어 디자인 영역까지 확장시켜 압화를 산업화하고 있다. 신정옥 대표는 자연에서 채취한 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양파, 옥수수 껍질을 염색해 친환경 인테리어 소재로 사용한다. 그의 작품은 가구로, 건물 창문으로, 실내외 부착할 수 있는 유리 타일로, 중문과 파티션, 샤워부스로 공간을 아름답게 변신시킨다.

압화를 인테리어 영역으로 확장

신정옥 대표는 압화를 배운 초창기, 아크릴 속에 압화를 넣은 컵받침을 만들었지만 압화가 황변해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없었다. 이에 신정옥 대표는 압화가 보다 오래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수차례 실패 끝에 물관이 살아 있을 때 색물을 먹인 후 꽃을 말리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렇게 만든 꽃을 아크릴 속에 집어넣으니 황변 없이 작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었다.

1985년부터 꽃을 다루기 시작한 신정옥 대표는 시드는 꽃이 안타까워 압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꽃만 꽃아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도 있었다.

“생활로 작품활동을 하면서도 늘 새로움을 추구해 왔습니다. 시드는 꽃 대신 압화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고 싶었습니다. 또 꽃을 산업화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압화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양파와 옥수수 껍질을 염색해 압화 소재로 사용하는 방법도 개발, 특허 등록도 했다. 양파와 옥수수 껍질을 표백한 후 염색해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양파는 수분이 많아 말리기 힘든 단점이 있지만 좋은 재료가 된다. 느티나무 가지에 양파를 얹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활짝 핀 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옥수수 껍질 역시 특유의 결이 작품에 아름다움을 더한다. 이와 함께 신정옥 대표는 열을 내지 않는 광소재를 활용해 빛나는 압화 작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꽃을 산업화하기 위해 신정옥 대표가 주목한 분야는 바로 건축 인테리어다. 유리에 압화를 접목시키기 위해 부산이며 일산, 판교 등 유리 공장을 찾아 다녔다. 그런데 유리를 녹이는 높은 온도가 문제였다. 높은 온도에 압화 재료가 손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끝에 접합유리를 발견했다. 압화가 접합유리와 만나 창문이 되고 중문이 됐다. 유리 타일로 변신하는가 하면 샤워부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 있게 됐다. 압화 접합유리의 가장 큰 매력은 아름다운 자연을 오래도록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온 꽃과 나뭇가지로 만든 작품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편안함을 제공한다. 공장을 세워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생산해 내고, 압화를 가르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IT 기술과 꽃 접목시킨 아이디어 구상

30년 넘는 세월동안 플로리스트로 활동해 온 신정옥 대표는 지난해 우수숙련기술자와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되며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신정옥 대표는 결코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플로리스트의 길을 시작했던 그때처럼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꽃을 산업화시키고자 하는 신 대표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대가 바뀌었으니 직업도 바뀌어야 해요. IT 기술과 꽃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정옥 대표는 식물을 자동화된 조건에서 키울 수 있는 스마트 식물공장을 시도 중이다. 식물은 반려동물 처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존재가 됐다.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반려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정옥 대표는 스마트 식물공장을 지어 희귀식물을 분양한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고객들은 스마트 식물공장에서 자라고 있는 자신의 반려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관찰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며 키울 수 있다.

이뿐 아니다. 주말이면 스마트 식물공장을 방문해 직접 살펴볼 수도 있다. 스마트 식물공장 주변에 잘 곳과 먹을 곳, 즐길거리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신정옥 대표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러 기술이 융복합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다. 고객들에게 IT 기술로 식물을 키우는 재미를 제공하고, 스마트 식물공장을 방문할 땐 머무를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단순히 꽃을 재배하는 산업이 아닌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할 계획이다.

신정옥 대표는 생활발명 코리아에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특허청이 주최하는 생활발명 코리아는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하고 출원·디자인·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제가 가는 길이 어찌면 돌아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길에 뭐가 있을까’ 기대가 커요. 앞

으로도 꽃을 산업화시키는 작업에 계속 몰두할 계획입니다.”

도전은 신정옥 대표에게 일상이었다. 두려움보다 미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플로리스트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정옥 대표는 자신의 길 끝이 꽃을 산업화시키는 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정옥 대표가 피워나갈 꽃처럼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한다. HRD

우수숙련기술자 신정옥

- * 신정 Design Glass·신정옥 컬렉션 대표
- * 1985년 아마추어 플로리스트로 입문
- * 2008년 대한민국 압화대전 공예부문 금상
- * 2018년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희망 전해 온 10년

SBS 라디오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김성 작가
박정일 PD
이인권 아나운서

SBS 라디오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프로그램이 벌써 10년째다.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는 파워FM(107.7MHz) 오전 7시 56분, 러브FM(103.5MHz) 오전 9시 56분에 1년 365일 청취자를 찾아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도 오전 9시에 이 방송을 들으며 힘찬 하루를 시작한다.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를 만들고 있는 김성 작가와 박정일 PD, 이인권 아나운서를 만났다.



Q. 2010년 시작한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가 햇수로 10년째인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김성 작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기획한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가 10년이 됐습니다. 제 방송작가 경력에 30년인데 1/3인 10년을 희망 리포트와 함께 보냈네요. 희망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왔어요. 김일중·배성재·조정식·김주우 아나운서에 이어 현재 이인권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나운서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박정일 PD 지난해 12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이 10년씩 자리매김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다른 기관 홍보 부서에서 희망 리포트를 부러워할 정도예요.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협조품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리포트는 매일 방송하기 때문에 소재 발굴이 중요한데, 그만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No.1 HRD 파트너’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가능했어요. 또한 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끊임없는 열정과 지원도 빼놓을 수 없어요.



①

Q. _____ 프로그램을 기획할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성 작가_ 2010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시그널 음악만 들어도 희망 리포트를 떠올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각인시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청취자에게 밝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이티 마우스의 힘찬 목소리로 “Hey, hey, hey.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다다. 3, 2, 1. Let’s go~”로 시작하는 시그널을 제작하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일 PD_ 매일 한 편씩 다른 내용을 전달해 보자는 다소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죠.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은데, 김성 작가님이 우리 프로그램의 ‘기둥’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세요.

Q. _____ 작가님께서 매일 새로운 원고를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김성 작가_ 평소 공단 기사는 모조리 챙겨 봅니다. 공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소재 고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늘 새롭습니다. 공단 사업이나 뉴스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Q. _____ 이인권 아나운서님은 지난해 여름부터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시나요?

이인권 아나운서_ 희망 리포트가 출근 시간대 방송되고, 청년들의 이야기도 다루기 때문에 밝고 힘찬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Q. _____ 완성된 프로그램을 듣는 청취자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박정일 PD_ 희망 리포트를 만드는 스태프는 모두 6명입니다. 전체 스태프가 매월 한 번씩 모여 기획 회의를 진행합니다. 해당 월의 중요한 공단의 이슈를 파악하고, 청년들의 취업 동향과 경제지표를 살피는 작업도 필수죠. 전국기능대회나 기능올림픽에는 취재를 위해 리포터도 동참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일반인 인터뷰도 취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 원고가 나오면 주 1회 7편을 녹음합니다. 녹음 후 방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숨소리까지 자르는 꼼꼼한 편집이 이어지죠. 모니터하고 품평회도 열고 있습니다.

Q. _____ 희망 리포트를 제작하면서 공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능력중심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김성 작가_ 공단 직원 못지않게 공단 사업에 대해 잘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도 모르게 공단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박정일 PD_ 이제는 스펙이 아닌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숙련기술은 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하죠. 방송을 제작하면서 신기술, 고속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생각보다 많고 다양해 놀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득한 숙련기술의 경험을 우리나라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Q. _____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김성 작가_ 단군 이래 취업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 최근 공단은 ‘일자리 창출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사업은 국민 행복과 직결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단 사업을 홍보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박정일 PD_ 방송 후 청취자 문의가 이어져요. 방송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전화를 많이 주세요. 관련 자료를 찾아가며 꼼꼼히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청취자께서 만족해하고 고마워하세요. 오랜 시간 같은 시간을 지켜온 희망 리포트가 국민에게 진정한 희망의 리포트를 전하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이인권 아나운서_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쁩니다.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이 커요.

Q. _____ 앞으로의 제작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박정일 PD_ 앞으로도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청취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담고 국

민신문고처럼 희망의 신문고가 되어 명장과 숙련기술인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 리포트를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_____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사보 독자를 위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 작가_ 일자리를 찾고, 숙련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다면 공단의 사업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공단 사업 속에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박정일 PD_ 도전하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세요!

이인권 아나운서_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HRD**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다다’

파워FM(107.7MHz) 오전 7시 56분 매일 방송
 러브FM(103.5MHz) 오전 9시 56분 매일 방송

- ① 김성 작가
- ② 박정일 PD
- ③ 이인권 아나운서



②



③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소득공제 40% 혜택

제로페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서울시와 경남 창원시, 부산 자갈치 시장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모바일 직불결제 시스템으로, 지난 5월부터 전국 대부분 편의점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대,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까지 생각한 '착한 결제' 제로페이를 소개한다.



내 계좌에서 이체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인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제로페이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내 통장 잔액에서 판매자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2018년 12월 2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매월 결제실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4월 28일 기준 일평균 6,600건, 8,418만 원의 결제실적을 보이고 있다.

제로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0%대의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수수료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판매자는 매출액의 0.8~2.3%를 수수료로 부담한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연매출액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는 0%. 소상공인이 내야 할 결제수수료가 아예 없다. 연매출액이 8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라면 0.3%,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부담한다. 일반 가맹점 역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제로페이 결제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공공시설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테마가든 입장료 30%, 서울식물원 주제원 온실 입장료 30%, 세종문화회관·남산국악당·돈화문국악당 기획 공연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편의점, 하나로마트, 휴게소 등 전국에서 사용 가능

제로페이는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각 은행 앱과 금융기관 공동 계좌이체 결제 앱인 뱅크페이, 간편결제 앱인 네이버나 페이코, 머니트리, SSGPAY, 포스트페이, 체크페이, 모바일티머니 등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비밀번호, 결제계좌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결제방식은 두 가지. 소비자가 앱을 실행해 매장 내 QR코드를 촬영 후 결제하는 방식과 앱에서 생성한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한 후 이를 인식해 결제하는 방식이 있다. 기존 판매자 QR코드 결제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에서 QR코드를 만들어 이를 리더기에서 인식하는 결제방식을 추가해 소비자의 사용편의성을 높였다.

제로페이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ストップ 등 전국 4만여 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협은 지난 6월, 대형마트 최초로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대전유통, 충북유통, 부산경남유통 등 유통계열사가 운영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제로페이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흥)휴게소, 제천(부산)휴게소 등 전국 25개 휴게소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서 '제로페이 소개 →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에서 볼 수 있다.

H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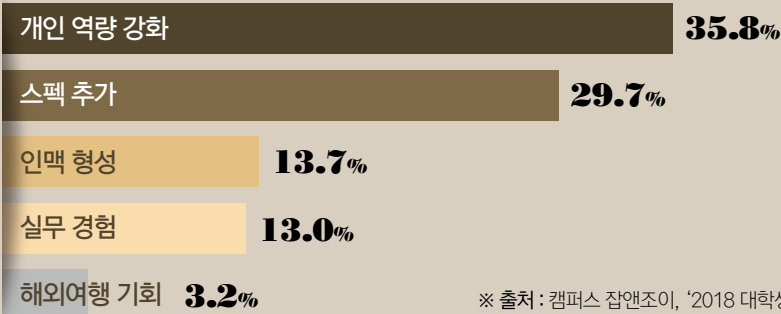
※ 자료 참조_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서울시-제로페이 홈페이지

경험이 경쟁력! 대외활동 준비하기



대외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2017년 대학생 대외활동 참여 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 동안 대외활동 경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77.7%를 기록했다. 또한 2018년 조사에서는 40.9%가 대외활동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대외활동을 슬기롭게 선택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본다.

대학생이 말한 대외활동의 장점



※ 출처: 캠퍼스 잡앤조이, '2018 대학생이 뽑은 최고의 대외활동' (2018.10.16.)

2018년 운영 대외활동 1,550개



※ 공모전 제외
※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대학생 대외활동 참여 실태 및 인식 조사(2019.01)

대외활동 준비 과정



대외활동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 올콘 www.all-con.co.kr
- 링커리어 linkareer.com
- 씽유 www.thinkuniv.com
- 스펙업 cafe.naver.com/specup
-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
- 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 월드프렌즈 코리아 www.worldfriendskorea.or.kr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www.ngokcoc.or.kr
- 더나은세상 www.1.or.kr

20.정보통신 > 02.통신기술 > 04.실감형 콘텐츠 제작 > 01.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현실 같은 생생한 경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5G 상용화로 실감형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5G 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이끌 실감형 콘텐츠 제작은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실감 콘텐츠 촬영, 증강 현실(AR) 콘텐츠 제작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직무를 소개한다.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직무의 정의

가상현실 콘텐츠는 수용자가 현장에 있다는 착각을 가지도록 가상의 공간에 양방향 요소를 배치하고 적절한 개별 장비를 사용해 수용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양방향 상호 반응 콘텐츠를 말한다.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이란 360도 실사 촬영 또는 3D그래픽으로 가상공간을 구성하고, 그 공간 내의 객체를 정의해 양방향 스토리텔링을 구현하는 일이다.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이란?

(분류번호 2002040101_16v1)

수용자 분석과 양방향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제작과 배포가 이루어지도록 제작 전반의 과정을 관리하고 설계하는 능력이다.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가상현실 콘텐츠 콘셉트 기획하기 2002040101_16v1	1.1 가상현실 콘텐츠 수용자 분석에 따른 콘텐츠 콘셉트를 선정할 수 있다. 1.2 선정된 콘텐츠 콘셉트 구현을 위한 사용 환경을 제안할 수 있다. 1.3 가상현실 콘텐츠 사용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용자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1.4 수용자 예상 반응 자료를 기초로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table border="0"> <tr> <td> 지식 · 가상현실 콘텐츠에 관한 지식 · 양방향 콘텐츠 관련 배경지식 · 휴먼 팩터에 관한 지식 · 인문학에 대한 지식 </td> <td> ·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소양 · 신규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식 · 방송 제작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 </td> </tr> </table>	지식 · 가상현실 콘텐츠에 관한 지식 · 양방향 콘텐츠 관련 배경지식 · 휴먼 팩터에 관한 지식 · 인문학에 대한 지식	·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소양 · 신규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식 · 방송 제작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
	지식 · 가상현실 콘텐츠에 관한 지식 · 양방향 콘텐츠 관련 배경지식 · 휴먼 팩터에 관한 지식 · 인문학에 대한 지식	·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소양 · 신규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식 · 방송 제작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	
	<table border="0"> <tr> <td> 기술 · 스토리텔링 기획에 대한 지식 능력 · 문서 작성 능력 </td> <td> · 인물, 사건, 배경, 음악의 종합적 구성 능력 · 가상 세계에 대한 전략적 사고 능력 </td> </tr> </table>	기술 · 스토리텔링 기획에 대한 지식 능력 · 문서 작성 능력	· 인물, 사건, 배경, 음악의 종합적 구성 능력 · 가상 세계에 대한 전략적 사고 능력
기술 · 스토리텔링 기획에 대한 지식 능력 · 문서 작성 능력	· 인물, 사건, 배경, 음악의 종합적 구성 능력 · 가상 세계에 대한 전략적 사고 능력		
<table border="0"> <tr> <td> 태도 ·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사고와 유연한 태도 · 새로운 가상 세계 창조를 위한 적극적 노력 · 다양한 사회적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 </td> <td> · 그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려는 자세 · 다른 부서와 협력하고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td> </tr> </table>	태도 ·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사고와 유연한 태도 · 새로운 가상 세계 창조를 위한 적극적 노력 · 다양한 사회적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	· 그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려는 자세 · 다른 부서와 협력하고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태도 ·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사고와 유연한 태도 · 새로운 가상 세계 창조를 위한 적극적 노력 · 다양한 사회적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	· 그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려는 자세 · 다른 부서와 협력하고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의 주요 업무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의 주요 업무로는 △가상현실 콘텐츠 콘셉트 기획하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설계하기 △가상현실 요소 구성하기 △가상현실 스토리텔링 구현하기 등이 있다.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직무 경험은 △가상현실 촬영 △3D그래픽 디자인 △응용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 직무 숙련기간은 3년이다. HRD

※ 출처 : NCS(www.ncs.go.kr)

상황면접 직업기초능력 문항 예시(자기개발능력)

- Q. 조직에서 당신의 경력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 Q. 회사에 입사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자신이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가요?

※ 출처 : NCS(www.ncs.go.kr) ▶ 블라인드 채용 ▶ 자료실 ▶ 채용모델 면접문항



청년 기능인 취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나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1978년 한국기술검정공단 대구지방사무소로 출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청년 기능인 취업을 지원, 지역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 되지 않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적 자원개발 지원에 힘써 대구시민이 필요로 하고, 가장 먼저 찾아 올 수 있는 공공기관을 지향한다.



(가장 왼쪽 왼쪽부터) 김동희 과장, 박재완 훈련조사분석원, 박동욱 대리, 하원태 과장, 조주호 과장, 소기호 부장, 이상혁 대리 (가운데부터 왼쪽부터) 임성일 부장, 한강이 대리, 홍영준 차장, 정호진 부장, 박호석 부장, 김형성 대리, 김한희 과장, 하채용 부장 (아랫줄 왼쪽부터) 김윤지 대리, 김가영 대리, 김란 과장, 한희에 대리, 윤석호 본부장, 이미랑 대리, 손우경 대리, 김경원 대리, 사공빈 대리, 변효진 과장

2019년 '기능기술인력 청년취업 지원 사업' 개시... 청년 우수기능인의 지역 내 취업 도와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대구지역은 최고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보니 매년 1만여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다. 사업주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요구하지만 인재가 대구에서 빠져 나가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청년 기능인의 경력개발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대구지역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석호 본부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제시했다. 지난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과 이러한 의지를 함께 했고, 올해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도 합심해 '기능기술인력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2019년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강소기업 취업 지원을 연계한 결과, 4명의 청년기능인이 취업했다.

윤석호 본부장은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들에게 수요자 중심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No.1 HRD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 역량 강화, 성장로드맵 설계 지원을 위해 직원 참여 중심의 학습활동을 운영하고, 직급 상하 간, 노사 간 소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7월부터 기관장과 소속직원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리더스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지역본부 직원들의 특징은 '강한 책임감'이다.

윤석호 본부장은 직원들에 대해 "인적자원개발 지원 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인지하고, 강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호 본부장은 경영성과 창출의 핵심이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는 "경어 사용하기, 먼저 인사하기, 감사하기 등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 역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업무 스트레스 덜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감과 탄탄한 업무 역량 갖추고 대구지역 인적자원개발 지원 위해 최선

- 대구지역본부는 직업능력개발부, 지역일학습지원부, 자격시험부, 전문자격시험부, 외국인고용지원부 등 5개 부서에서 총 49명 직원으로 이뤄져 있다.

늘 웃음이 넘치는 직업능력개발부는 경영지원, 능력개발사업,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을 담당한다. 대구지역본부 전체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변효진 과장은 "올해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업무 프로세스 컨설팅, 다른 사업과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윤석호 본부장



직업능력개발부, 외국인고용지원부



지역일학습지원부



자격시험부, 전문자격시험부

지역일학습지원부는 일학습병행,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을 맡고 있다. 무엇보다 451개 기업에서 학습근로자 1,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은 지역일학습지원부의 핵심 사업이다. 일학습병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 비중을 강화하고 지방고용관서와 협업해 양질의 훈련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경훈 주임은 “도제 종료단계 모니터링에서 학습근로자가 ‘도제 학교 - P-TECH(고속연일학습병행) - 병역특례’에 이르는 단계별로 인생설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자격시험부는 우리나라 국가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완벽한 팀워크가 돋보이는 부서다. 500여 개 종목을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목표를 지닌 많은 수험자가 마침내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손우경 대리는 “신설 종목·산업현장성을 갖춘 시설장비 시험장 확보를 통해 자격검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전문자격시험부는 24개 국가전문자격,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상시자격시험, 일학습병행 외부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다양한 업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직원 간 형성된 끈끈한 유대관계에 힘입어 즐겁게 일하고 있다. 전문자격시험부의 올해 중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과정평가형 국가 기술 자격이다. 올해 선정 과정평가형 과정은 총 87개, 6월

현재 44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자격시험부는 운영 기관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운영기관을 적극 지원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의 품질 강화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강이 대리는 “청소년상담사에 응시한 수험자의 서류 보안을 위해 여러 차례 상세히 안내한 적이 있는데, 이후 고마운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외국인고용지원부는 5명이라는 적은 인원이지만 서로 배려하는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랑 대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을 때, 외국인근로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할 때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은 외국인고용지원부에 문의주시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대구시민들을 위한 인적 자원개발 지원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석호 본부장은 “대구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히 형성하고, 콘텐츠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만족도 제고 중심의 대구지역본부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RD

대구지역본부 직원들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여름휴가지

지역일학습지원부
—
사공빈 대리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몽골

“이번 여름, 몽골 울란바토르로 4박 5일 동안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몽골 여행 성수기는 6~8월인데요, 우리나라 5월 날씨라 여행하기 좋다고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테를지 국립공원 내 전통가옥 게르에서 묵으며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을 볼 생각에 정말 기대가 큼니다.”

칭기즈칸 광장, 간단 사원, 자이승 승전탑, 말고기 휘귀가 유명하다. 테를지 국립공원 포토존은 거북바위 앞. 휴가 날 필요 없이 다녀올 수도 있다.

지역일학습지원부
—
김한희 과장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멋스러운 해상누각에 올라 바다를 배경으로 이번 여름 ‘인생샷’을 만들어 보세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인 ‘환여횃집’에 들러 물회를 꼭 드셔보세요! 포항구룡포과메기문화관 4층 커피숍 방문도 추천합니다.”

백사장 길이 1,750m의 영일대해수욕장은 모래가 고와 아이들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해안로(두호동 685-1)

직업능력개발부
—
김형성 주임



인도 사막도시 자이살메르

“지난해 친구들과 인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낙타 사파리는 사막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어요. 모닥불 하나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보는 밤하늘이 정말 예뻐요! 한국음식점도 있으니 둘러보세요.”

‘황금도시’ 자이살메르에선 사암으로 지어진 고풍스런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름 여행은 무더위 속에서 진행되겠지만, 한국 여름이 시원하게 느껴질 것이다.

내 인생에 찾아온 기적 같은 두 번째 도약

2018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이윤상**



국비 프로그램 선발 멤버로 발탁되다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를 결정했지만 전역하고 나서도 우리 집에 남은 것은 몇 억이라는 빚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빚을 갚기 위해 몇 년을 학원 강사와 영어 과외선생으로 일했고, 다행스럽게 빚은 다 갚았지만 다시 나의 길을 찾아야 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요리를 해주며 기쁨을 줬던 추억을 떠올렸다. 전문학교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영어를 활용하기를 원하셨다. 가능하다면 해외에 나가 요리사로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에서 국비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영어 수업부터 시작해 짧은 시간 내 호주에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나에게에는 다시없을 기회 같았다. 수많은 지원자 가운데서 한 명으로 발탁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다.



강행군의 연속에서도 많은 배움을 얻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영어수업과 자습을 진행했다. 3개월 만에 IELTS 5.5 수준의 영어 실력을 만들어 시험 통과를 해야 호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모든 영어 수업과정을 마치고 20대 초반에 유학길에 올랐던 마음이 짐보다 더욱더 진중한 마음으로 호주로 넘어오게 됐다.

TAFE에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한국보다 더 체계적으로 다방면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접근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곳은 요리의 기본을 다지고, 개념을 잡기에 정말 좋았던 것 같다. 우리가 참여했던 Certificate IV in Commercial Cookery 코스는 17주 프로그램이었기에 많은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해야 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도 많았고, 토요일에도 이론 수업이 매주 있었기 때문에 강행군에 다들 힘들어 하면서도 새롭게 배우는 것들에 대해 열심이었다. 또한 매주 화, 수는 학교에서 연결해 준 브리즈번에 있는 유명 호텔들로 인턴십을 나갔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주방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재료들은 어떻게 조리하는지 알 수 있었다.

“
국비 프로그램에 꼭 지원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발판으로
삼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추천한다
”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다

수업을 무사히 수료하고 나는 멜버른으로 가 여러 군데 이력서를 돌렸고, 2016년에 Top 100 레스토랑에서 56위를 받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연락을 받았다. 오픈 주방이다 보니 일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다.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요리사로서 일하고 있지만, 국비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경력도 없는 내가 1주에 50시간만 일하면서 월급을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었을까? 혹시 국비 프로그램에 대해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꼭 지원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발판으로 삼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기회를 허락해준 제이엠피코리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HRD

독자 여러분의 수기를 받습니다

직업과 꿈, 희망을 나누는 내용이라면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 kjy626200@hrdkorea.or.kr

발길 닿는 어디든 여행지 경기도 가평

경기도 가평은

아름다운 자연이 으뜸인 지역이다.

발길 닿는 어디든 저마다의 풍경이 있다.

여름이면 더욱 빛을 발하는 경기도 가평으로

시원하고 활력 넘치는 여행을 떠나보자.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남양주와 강원도 춘천에서 가까운 경기도 가평은 언제 떠나도 좋다. 봄에는 아침고요수목원 봄나들이 봄꽃축제가 펼쳐지고, 가을이면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제18회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겨울에는 금빛 송어를 잡을 수 있는 자라섬쟁쟁축제가 열린다. 여름은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가평을 만끽하기에 그만인 계절이다. 나무들이 만든 그늘 아래서 흠길을 걸으며, 계곡과 폭포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하다. 가평의 매력을 보여주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쉽과 풍류가 있는 여행

가평 특산물 중 하나는 잣이다.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가평에는 잣나무가 많다. 커다란 잣나무숲이 조성된 축령산을 찾아보자. 축령산에는 잣향기 푸른 숲이 있다. 잣향기 푸른 숲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 15개 산림휴양지에서 피톤치드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한여름에도 서늘함을 느끼고 싶다면 가평 제5경인 도마치계곡으로 향하자. 경기도 유일 청정지역으로, 천연기념물인 열목어가 살고 있다. 산수가 빼어나 새들이 춤을 추며 즐겼다는 조무락계곡은 등산한 땀방울을 시원하게 식혀주기에 충분하다.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느긋한 풍류를 만끽해 본다.

가평터미널에서 가까운 자라섬은 한적한 심을 즐기기에 그만인 장소다. 뭉게구름이 북한강 물 위에 비친 풍경은 저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한다. 짙와이어로 짜릿한 스릴을 느껴보고, 열기구 타며 색다른 경험을 즐겨보자. 자라섬 오토캠핑장 옆에는 나비와 식물을 볼 수 있는 나인포레스트 이화원이 있다.

나인포레스트 이화원

자라섬

주소 | 가평을 자라섬로 64

주소 | 가평을 자라섬로 60



①



②



③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 여행

5일장은 지역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날짜가 맞다면 5일장으로 향하자. 2일, 7일로 끝나는 날은 청평5일장, 4일, 9일은 현리5일장, 1일, 6일은 설악5일장, 5일, 10일은 가평5일장이 열린다. 가평터미널 뒤편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들어선 가평 뮤직 빌리지 '음악역 1939'에는 가평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

가평을 여행하다 차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할 땐 카페 아하를 둘러보자. 카페 아하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취업희망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카페다. 수익금은 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 가평군청 근처에 2011년 문을 연 1호점, 설악면에 2호점이 있다. 가평경찰서 맞은편에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꿈앤아하도 있다.

가평을 더욱 속속들이 즐기고 싶다면 관광문화콘텐츠협동조합 '가치가'를 추천한다. 가평 주민들이 여행사를 운영하기에 가평 주민들만이 알고 있는 가평의 숨겨진 가치와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HRD**

카페 아하

주소 | 가평을 석봉로 199(1호점), 설악면 신천중앙로 104-1(2호점)

카페 꿈앤아하

주소 | 가평을 가화로 58

로컬푸드 매장

주소 | 가평을 석봉로 100

관광문화콘텐츠협동조합 '가치가'

전화 | 031-585-4267

홈페이지 | <http://gachiga.kr>

- ① 적목리 계곡
- ② 축령백림
- ③ 조무락골



가평시티투어로 떠나는 두박이 여행

A코스 | 가평터미널 → 가평레일바이크 → 자라섬(이화원, 캠핑장) → 가평역 → 남이섬 → 금대리 회관 → 인터렉티브 아트뮤지엄 → 북장리 삼거리 → 뷔띠프랑스(청평페리유람선) → 호명리 → 청평터미널 → 청평역 → 임초교 앞 → 아침고요수목원

B코스 | 목동터미널 → 현암농경박물관 → 가평역 → 가평터미널 → 가평레일바이크 → 칼봉산휴양림 → 가평역 → 남이섬 → 인터렉티브 아트뮤지엄 → 설악터미널 → 스위스마을 → 회곡리 → 청평터미널 → 청평역 → 아침고요수목원

이용요금 | 1일 성인 6,000원, 청소년·어린이 4,000원, 장애인·군인·경로 4,000원, 만 3세 이하 무료

승차권 구입처 | 탑승 시 운전기사로부터 구입 **특징** | 당일 티켓 한 장으로 A코스, B코스 모두 자유롭게 환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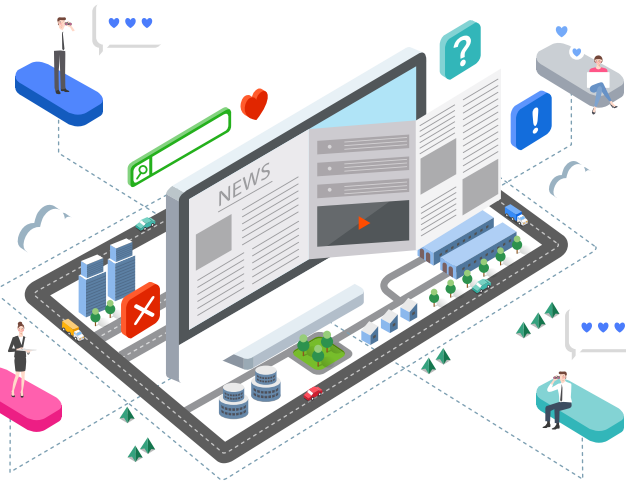
네트워크는 어떻게 투명사회를 만드는가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유나 차장

2017년, 강원랜드로부터 촉발된 채용비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정도로 채용비리는 공정성을 침해하는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같지는 않았다. 낙하산이라는 말로 수군거리거나 가십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어떤 이에게는 소위 ‘뺨’이 있어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였고,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이기도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었던 거다.

‘갑질’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간 권위를 내세우며 자행하는 비이성적인 행위들이 언론에 공개되며 갑질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많은 공공기관이 올해 핵심과제로 갑질 근절을 꼽고 있으며,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갑질은 갑자기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 약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과 행동들이 은밀하게 축적되다가 그저 이제야 공론화가 된 것뿐이다. 불공정과 잘못된 특권을 공공연히 허락했던 시대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던 행동이 갑자기 오늘날에는 ‘비리’로 변해버렸으니, 어쩌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아들이나 갑질의 가해자는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정직하고 공정해야만 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왜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공론화된 것일까? 공정이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졌고, 정확하게는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러미 하이먼즈는 최근 본인의 저서인 「New Power」에서 수직적인 조직이 가지던 권력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했다. 기존의 거대 기획사와 자본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팬들과 소통한 BTS의 사례를 들며,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흩어져있던 사람들이 참여자가 되면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지도력과 조직화가 등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행동과 문화를 형성한다고 했다.

수직적인 조직일수록 채용 비리나 갑질 등 권위에 의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기 쉽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개선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수평적인 조직은 구성원이 참여하고 개방되어 있으므로 전자와 반대로 작용한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미투 운동이나 대한항공 마스크집회, 소액주주운동 등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연대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회구성원의 수평적인 연대가 사람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힘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영향력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 빠르고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속해있는 조직은 어떻게? 여전히 수직적, 권위적인 조직이 주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나, 집단과 조직을 중시하던 이전의 가치관은 새로운 세대의 유입과 위와 같은 사회의 변화 흐름에 따라 이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수평적, 탈권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개, 개방, 참여의 키워드는 개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고, 공정함에 대한 요구로 확장된다. 자연스럽게 사회는 투명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전에는 개인의 양심에 기대어 정직하고 공정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제는 정직하고 공정해야만 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는 점차 덜 독점적이고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기존의 구조에서 안일하게 머물러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채용비리나 갑질처럼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던 행동들이 한순간 ‘비리’라는 이름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고 했다. 권력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이라도 시간의 흐름은 이길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사회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HRD

HRD KOREA NEWS

2019. 07

‘201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성과평가 최우수공동훈련센터 시상식’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6월 21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우수 공동훈련센터 선정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 포스코, LG전자, 현대로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우수 공동훈련센터 16개의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훈련참여 확대를 주도하는 컨소시엄 전담자와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사업 확산을 당부했다.

공단-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문진국·이상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지난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유목민 시대의 노동변화를 살펴보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오늘 도출된 과제들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지난 6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전자정부 우수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단 등 4개 유관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원국의 전자정부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분야별(연금, 보험, 일자리 등) 컨설팅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사례를 국외에 전파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은 베트남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한다.

2019년도 상반기 우수제안 표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6월 17일, 공단 본부에서 지식제안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 포상을 실시했다. 공단은 2005년부터 공단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지식제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 우수우수제안으로 ‘실기시험 관리 프로그램 자체 개발’(장려, 경남지사 최상문 자격시험부장 외 직원 9명), ‘외국인근로자 도입업무 일원화를 위한 ‘EPS 외부망’ 및 ‘VISA 포털’ 개선방안’(장려, 경기동부지사 박경란 과장), ‘시험문제지 포대 봉인방식의 간소화’(5등급, 부산지역본부 안병호 주임)가 선정됐다.

공단-우정사업본부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가 지난 6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장제비 ▲우편·금융 서비스 ▲국가별통역서비스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자살·무연고 사망 발생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장제비를 지원하고, 우편·금융업무 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16개 언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동만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RD



책추천 BOOK

※ 공단의 독서경영 '복적복적'의 일환으로 공단 직원이 직접 책 한 권을 추천하는 코너

실어증입니다, 일하기싫어증 그림왕양치기 _____ 열한 번째 추천도서

직장인이려면 ‘폭풍 공감’ 할만한 재기 넘치는 그림에세이다. 직장인의 속마음과 애환을 재치 있는 그림과 유머로 유쾌하게 풀어냈다. 눈뜨기 힘든 월요일 아침부터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금요일의 퇴근 순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버리는 주말까지 직장인의 일상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직장생활의 힘들었던 점을 유쾌하게 위로받고 웃으며 공감할 수 있어 직장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지사 직업능력개발부 천지은 훈련조사분석원

울산지사 독서모임 '똑똑'

우체통

이현희 | 인천

준비된 능력으로 JOB을 JOB다

굴삭기 자격증에 도전한 배우 조재운씨의 기사를 보며 연령별, 성별, 지역별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향후 전망이 좋은 자격증 종류와 업무활용도 등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김윤희 | 서울

땀방울과 자격증이 인정받는 실력사회!

‘땀으로 일군 값진 인생’ 김정배 대표님의 절감 명가 전통계승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젊은 층의 입맛도 사로잡는 명실상부한 절감 명가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김성우 | 강원 춘천

‘동반성장의 현장’ 대우루컴즈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우렁찬 모습에서 내일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한석 | 경기

일자리 창출은 밝은 미래를 여는 풍성한 희망나무

‘트렌드 리포트’를 읽고 현실에 안주하며 꿈을 키우지 않았던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그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한 삶을 깨달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규연 | 부산

내가 가진 능력 발휘와 취업으로 내 가족 생계유지의 디딤돌

‘화제의 인터뷰’를 보면서 국가기술자격은 철저히 그리고 충분히 준비해야 취득이 가능하고, 앞으로 사회 진출 시 유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상동 | 경기 용인

다양한 능력 중심의 밑거름

배우 조재운 님의 굴삭기 자격증 합격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에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HRD KOREA> 2019년 상반기 설문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인 <HRD KOREA>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독자엽서 뒷면 문항에 대한 답변을 독자엽서(7월 17일 도착분에 한함) 혹은 이메일(kyj626200@hrdkorea.or.kr / 주소, 연락처 기재)로 보내주세요. **성심성의껏 답해주신 10분**을 선정, **문화상품권(3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UIZ

SBS 라디오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 이 프로그램은 아침 7시 56분 파워FM에서만 들을 수 있다? Yes No
-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방송한다? Yes No
- 아쉽게 방송을 놓쳤다면 다시 들을 수 있다? Yes No

3. Yes SBS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프로그램은 파워FM(104.7MHz)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www.sbs.co.kr)에 접속하여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프로그램의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2페이지 '화제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수집 및 이용 목적: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발송
 · 수집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 보유기간: 동의 철회 시까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HRD KOREA> 신규구독신청
 <HRD KOREA 이메일 뉴스레터> 수신신청
 이메일 _____

우편엽서



HRD KOREA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 2019년 7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1	2	3	4	5	6
▶ 정기 기사 2회 실기 시험(6.29~7.12)			▶ 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 발표		▶ 정기 기사 3회 필기 원서 접수(7.5~7.11)	▶ 가맹거래사 2차 시험
7	8	9	10	11	12	13
	▶ 공인노무사 2, 3차 원서 접수(7.8~7.17) ▶ 제27회 청소년지도사 1차 원서 접수 (7.8~7.17)		▶ 제25회 정수시설운영 관리자 1차 합격자 발표 ▶ 제27회 청소년지도사 1차 합격자 발표			▶ 기술사 118회 면접 시험 (7.13~7.22) ▶ 정기 기능사 3회 필기 시험(7.13~7.21) ▶ 기능장 66회 필기 시험(7.13~7.14) ▶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14	15	16	17	18	19	20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1, 2차 원서 접수 (7.15~7.24) ▶ 행정사 2차 원서 접수 (7.15~7.24)		▶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2차 합격자 발표 ▶ 손해평가사 1차 합격자 발표		▶ 기술사 119회 필기 원서 접수(7.19~7.25) ▶ 기능장 66회 필기 합격자 발표	▶ 물류관리사 시험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
21	22	23	24	25	26	27
	▶ 관광통역안내사 1, 2차 원서 접수(7.22~7.31) ▶ 손해평가사 2차 원서 접수(7.22~7.31) ▶ 기능장 66회 실기 원서 접수(7.22~7.25)				▶ 정기 기능사 3회 필기 합격자 발표	▶ 변리사 2차 시험 (7.27~7.28)
28	29	30	31	1	2	3
	▶ 정기 기능사 3회 실기 원서 접수(7.29~8.1)					

▶ 원서 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HRD KOREA> 2019년 상반기 설문조사

▶ 성별

남성 여성

1. <HRD KOREA>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사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은 이해하기 쉽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사보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사보에서 가장 즐겨보는 코너는?

()

9. 7월호를 읽고 느낀 점과 일자리 관련 슬로건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 사보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사보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일을 잘 알게 됐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사보의 글씨 크기는 적당하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현재 사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

HRD KOREA

vol. 277
JULY 2019

07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앞장섭니다.

